2026.02.04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기업분석

US Equity Analyst 박기현 kihyun.park@kiwoom.com

루멘텀 홀딩스 (LITE.US)

CPO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대장주

- 차세대 CPO 반도체 진화에 필수불가결한 광학 엔진 공급 기업
- 시장의 기대를 압도하는 실적 및 가이던스 발표로 확증된 가파른 성장 기울기
- PEG 1.18배로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

AI 인프라 '광학화'의 독보적 수혜주

루멘텀 홀딩스(LITE)는 차세대 클라우드 및 AI 데이터센터의 신경망을 구축하는 광학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AI 연산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 구리 배선을 통한 전자(Electron) 전송 방식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매개체가 빛 기반의 광자(Photon)로 급격히 이동하는 광학화의 거대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 사업 부문은 크게 레이저 칩과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컴포넌트(Components) 부문과 트랜시버, 광학 회선 스위치(OCS)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Systems) 부문으로 구성된다. 현재 LITE 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AI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Q2FY26 실적: 가이던스가 확증한 '차원이 다른' 성장 기울기

분기 매출액은 6.66 억 달러(+65% YoY)를 기록, Non-GAAP 기준 EPS 는 1.67 달러(+298% YoY)를 기록해 컨센서스(6.53 억 달러, 1.41 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Non-GAAP 영업이익률은 25.2%를 기록, 전년 동기(7.9%) 대비 1,730bps 라는 큰 폭의 확대를 보여주며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이는 판관비(OpEx)를 매출액 대비 17.3%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믹스 개선과 선별적인 가격 인상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이다.

컴포넌트(Components) 부문에서는 200G EML 레이저가 수익성 개선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해당 제품은 전체 출하량의 약 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균판매단가(ASP)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레이저 칩 매출의 약 10%를 기여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동사는 인듐인(InP) 웨이퍼 팹 생산 능력을 전 분기에만 20% 추가 확보하며 공급 부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25~30% 상회하는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8 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한 DCI 용 협대역 레이저와 전년 대비 90% 이상 매출이 급증한 펌프 레이저 역시 견고한 펀더멘털을 뒷받침했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2.03): $448.53
목표주가 컨센서스: $537.30

▶ 투자의견 컨센서스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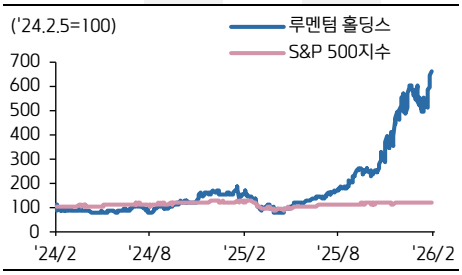
산업분류	통신 장비
S&P 500 (02/03)	6,917.81
현재주가/목표주가	435.1 / 399.52
52주 최고/최저 ($)	464 / 45.65
시가총액 (백만$)	30,849
유통주식 수 (백만)	71
일평균거래량 (3M)	4,740,407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2,883	3,419	4,523	5,365
영업이익	306	361	492	595
OPM(%)	10.6	10.5	10.9	11.1
순이익	325	369	491	591
EPS	8.88	10.17	13.53	16.24
증가율(%)	15.8	14.5	33.0	20.0
PER(배)	30.2	32.1	33.1	27.6
PBR(배)	5.1	5.3	6.9	5.8
ROE(%)	18.4	17.8	22.8	22.5
배당수익률(%)	-	-	-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9.1	9.1	21.7	23.5
S&P Index	1.9	1.0	9.5	1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0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시스템(Systems) 부문에서는 광학 회선 스위치(OCS)의 조기 시장 안착과 트랜시버 사업의 체질 개선이 돋보였다. OCS는 당초 목표보다 한 분기 빠른 분기 매출 1,000만 달러 런레이트를 돌파했으며, 현재 수주 잔고(Backlog)는 4억 달러를 넘어서며 2026년 하반기 대규모 양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클라우드 트랜시버 사업 또한 태국 공장의 수율 개선과 1.6T 노드에서의 기술 선도력을 바탕으로 전 분기 대비 5,000만 달러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전사적 수익성 제고에 기여했다.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주가는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8.48% 급등한 472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Beat and Drop'을 보이는 여타 테크 기업들과 달리, LITE가 제시한 Q3 매출 가이던스($7.8억~8.3억, Q2FY26 대비 17~25% 증가)가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구간임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PEG 1.18배가 시사하는 가격 매력

LITE는 현재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멀티플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과열이 아닌 폭발적인 실적 성장 초입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성장주의 특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12M Fwd PER은 약 71.6배로 섹터 중앙값(24.1배)을 크게 웃돌지만, 이익 성장률을 투영한 PEG 배수는 1.18배에 불과하여 섹터 평균인 1.61배 대비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 EPS 성장률은 FY26 187.17%를 기점으로 FY27 55.7%, FY28 31.8%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이익 체력의 개선은 향후 동사의 멀티플을 자연스럽게 압축하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력하게 확보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내 데이터 전송 방식이 전자에서 광자로 전환되는 '광학화'가 이제 막 태동기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모든 선단 공정 반도체에 광학 엔진이 통합되는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동사의 수익성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동사의 실질적인 유효시장(TAM)이 사실상 선단 공정 반도체 전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성장 전망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선 패러다임 시프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12 개월 선행 멀티플 수치에 매몰되기보다, 향후 동사가 장악할 고부가가치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독보적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광학 솔루션이 반도체 패키징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동사가 누릴 구조적 수혜와 그에 따른 이익의 질적 개선은 현재 시장이 부여한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투자 포인트: AI 인프라의 광학화가 견인하는 이익 성장의 가속화

(EML 수급 불균형 기반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 확보와 1.6T 시장의 전략적 선점)
EML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결정력과 1.6T 선점 AI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800G 및 1.6T 트랜시버에 탑재되는 100G/200G EML 레이저 칩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동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인듐인(InP) 생산 능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들과 2027 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급 계약(LTA)을 체결하고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초기 1.6T 시장이 EML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동사의 점유율 확대와 ASP 상승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OCS 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차세대 캐시카우 확보) OCS(광학 회선 스위치) 시장의 가파른 램프업 데이터센터 내부 아키텍처가 광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OCS 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동사의 OCS 수주 잔고는 이미 4 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공급 대상 고객사 역시 기존 리드 고객에서 3 개 이상의 하이퍼스케일러로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2026 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진입함에 따라 OCS 는 동사의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텔레콤 업황의 V 자 회복과 제조 전략 혁신) 오랜 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텔레콤 부문이 마침내 사이클의 저점을 통과하며 실적 반등의 강력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00G 이상의 고속 전송 제품군과 코히어런트(Coherent) 컴포넌트에 대한 수요가 순차적 및 전년 대비 모두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장거리 및 해저 네트워크용 펌프 레이저 매출은 전년 대비 90%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이와 동시에 태국 공장(Nava)으로의 생산 거점 이전과 선별적인 위탁 생산(CM) 확대 등 제조 전략의 근본적인 혁신은 동사의 매출 총이익률(GM)과 영업이익률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CPO – AI 인프라의 '전력 장벽'을 허물 유일한 광학적 해법

LITE 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술인 CPO(Co-Packaged Optics) 생태계에서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독보적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사가 CPO 밸류체인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단순히 성능의 우위를 넘어 AI 연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세 가지 본질적 가치로 귀결된다.

첫째, LITE 는 CPO 플랫폼의 심장부인 초고출력(UHP) 레이저 분야에서 '기술적 해자와 신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일한 기업이다. 1.6T 를 넘어 3.2T 급 초고밀도 환경에서는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가 핵심인데, 동사의 400mW 급 UHP 레이저는 업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수십 년간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검증된 압도적 신뢰성을 데이터센터 내부로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는 치명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동사를 '대체 불가능한 단일 광원 파트너'로 각인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둘째, 단순 레이저 칩 공급에서 외부 광원(ELS) 모듈로의 '비즈니스 모델 피벗'은 동사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업사이드 동력이다. 동사는 칩 단품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필드 교체가 가능한 플러그형 ELS 모듈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대당 매출액(Content Gain)을 기존 대비 2~2.5 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컴포넌트 업체의 한계를 벗어나 하이퍼스케일러와 직접 기술 규격을 논의하는 시스템 솔루션 파트너로의 지위 격상을 의미하며, 향후 CPO 채택 확산에 따른 이익의 질적 도약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기존의 광 스케일아웃(Scale-out)을 넘어 랙 내부의 구리 연결을 광학으로 대체하는 '광 스케일업(Optical Scale-up)'이라는 새로운 개척지를 선점하고 있다. 구리 배선이 신호 손실과 거리의 물리적 벽에 부딪히는 2027 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동사는 GPU 와 GPU, 랙과 랙 사이를 빛으로 잇는 차세대 연결 표준을 주도할 준비를 마쳤다. 수억 달러 규모의 사전 수주(PO)를 통해 이미 검증된 이 기술적 우위는 LITE 를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선단 공정 반도체가 광학 엔진을 탑재하게 될 '광학 컴퓨팅 시대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루멘텀 홀딩스 FY26 2Q ('25.09.28~12.27)

구분	FY26 2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USD)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5 2Q	성장률	FY26 1Q	성장률
매출액	666	653	2.0%	402	65.5%	534	24.7%
영업이익	168	137	22.3%	32	429.0%	100	68.0%
영업이익률(%)	25.2%	21.0%	4.2%p	7.9%	13.1%p	18.7%	6.5%p
순이익	144	118	22.1%	30	379.7%	86	66.6%
EPS (USD)	1.67	1.42	18.0%	0.42	297.6%	1.10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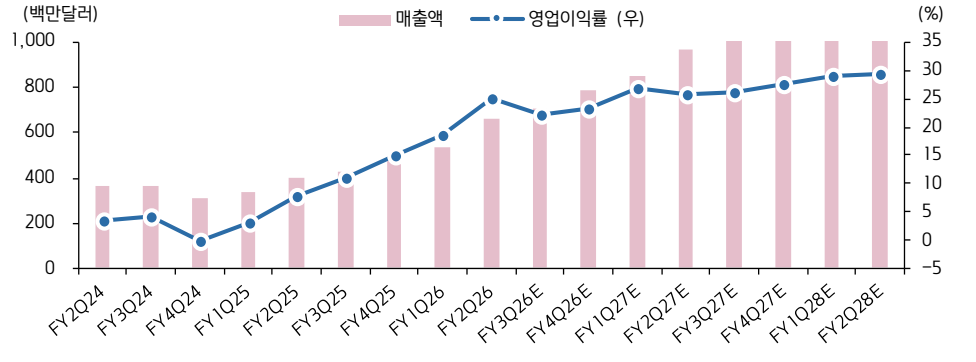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0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USD)	FY26Q3	YoY 성장률	FY26Q4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YoY 성장률
매출액	707	66.3%	788	64.0%	2,644	60.7%	3,737	41.4%
영업이익	157	241.6%	182	152.1%	568	254.5%	963	69.6%
영업이익률	22.3%	11.4%p	23.1%	8.1%p	21.5%	11.7%p	25.8%	4.3%p
순이익	134	226.8%	154	143.0%	484	230.5%	814	68.2%
EPS (USD)	1.69	196.7%	1.81	106.1%	5.89	185.9%	9.41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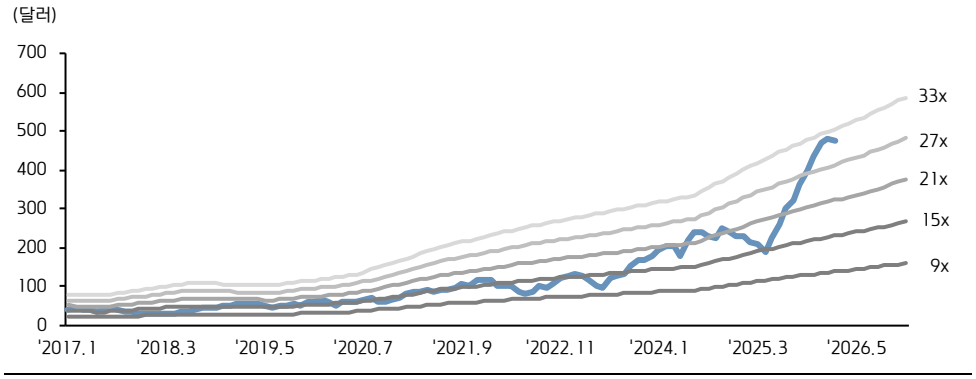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0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0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2-03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루멘텀 홀딩스 상세실적표

(백만 달러)	FY2Q25	FY1Q26	FY2Q26	YoY(%)	QoQ(%)
[GAAP]					
순매출액	402	534	666	65.5	24.7
부품 매출액	264	379	444	68.3	17.0
시스템 매출액	139	155	222	60.1	43.5
매출원가	281	333	406	44.3	21.9
무형자산상각비	21	20	20	-8.9	0.0
매출총이익	100	182	240	141.2	32.3
연구개발비	74	81	80		
판매관리비	76	85	96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 비용	1	8	0		
영업이익	-52	7	64	흑전	861.2
순이자비용	-6	-6	-6		
기타 순수익	15	4	39		
세전이익	-42	5	97	흑전	1757.7
법인세비용	19	1	18		
순이익	-61	4	78	흑전	1764.3
희석 EPS	-0.88	0.05	0.89	흑전	1680.0
희석 가중평균주수 (백만)	69	78	88	27.4	12.1
주요 영업지표 [Non-GAAP]					
매출총이익	110	210	283	156.2	34.5
영업이익	10	100	168	1577.1	68.0
EBITDA	58	128	198	244.3	55.4
희석 EPS	0.18	1.10	1.67	827.8	51.8

자료: 루멘텀 홀딩스,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